

CNOOC, 중국 해상유전 개발 시동

해외자원에서 자국으로 눈 돌려 ... 2010년 신규 프로젝트 9개 추진

해외에서 공격적으로 석유자원 확보에 나섰던 중국이 이제는 자국의 해상유전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중국 CNOOC(해양석유공사)는 2월2일 <2010년 석유가스 개발 계획>에서 2010년 추진할 석유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했다.

CNOOC의 2010년 신규 석유개발 프로젝트는 9개로 모두 중국 해상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Bohai만 북부에서는 상반기 중으로 생산을 개시하고 진조우 광구에서는 하반기에 생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탐사사업은 98개의 탐사정 시추가 예정돼 있고 심해 지역에서는 해외 석유기업과 공동 탐사시추가 계획돼 있다.

해외유전 개발 분야에서는 우간다와 나이지리아 진출 노력이 계속될 전망이다.

CNOOC는 2010년 사업 투자액이 전년대비 29.5% 증가한 79억3000만달러로 탐사사업 예산이 36.5% 급증한 14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투자액의 3분의 2 이상은 중국 내 석유개발에 투입된다고 석유공사는 분석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중국이 자국 내 석유개발로 관심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며 “국제 석유 산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국 내 석유개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외 석유개발도 꾸준히 추진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2/18>